

한밭도서관 그린리모델링사업 심사위원 평가사유서

□ 평가사유서

심사위원	심사번호	세부 평가 내용
A	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리모델링이라기보다 복원사업의 개념에 치중하여 시대적 변화성을 입히는 작업으로는 미흡함. 그린에너지 부분에서는 공간처리 및 기법이 ‘작품가와 나’가 대동소이함.
	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대적 상징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으며, 열린 문화공간과 커뮤니티 개념을 작동시킴에 비교 우위평가를 할 수 있음.
B	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입면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건축가의 의도한 건축적 특색을 보존할 수 있어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좋은 대안이나, 노후된 건축물의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아쉬움. 외장재 재사용은 식재에 대한 자재비를 줄일 수 있으나 외장재 분리의 인건비와 공사기간이 철거에 대비 약 2배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.
	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거에 박재하기보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이용자들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입면안이 돋보임. 입면 커튼월의 열전달과 자외선 차단 등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내단열·외단열의 열교차에 대한 단점 해결방안의 제시가 필요할 것 같음.
C	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설계안에 대해 자세한 계획과 기존 건물을 유지하려는 면이 돋보였음. 당초 설계안을 유지하기 위한 기존 석재 유지계획이 공사비 측면에서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해보임.
	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미지 개선을 위한 입면 디자인 제안이 돋보였으며 외부공간과 연계 방안이 적절하나, 지상2층~4층을 전체 커튼월이 아닌 남측면만 계획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해보임.
D	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 건축물의 가치와 설계의도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리모델링에 접근하는 태도가 우수하나, 존중 또는 유지, 재현만을 위한 리모델링이 아니고 시대 변화와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유연한 대응 필요.
	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취지에 맞는 고민과 아이디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으나, 기존 건축물의 설계의도와 가치에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각이 아쉬움
E	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물이 가지는 역사성과 가치의 공유를 주목하고 존중하는 제안임. 모든 것을 바꾸지 않기보다는 조명, 금속 등 세부적인 부분의 변화를 수용하면 복고적인 인상을 개선하면서 원안의 의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임.
	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새로운 이미지로 기존 건축물에 활기를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적극적인 제안이나, 네 면 전부를 커튼월로 마감하는 것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방향이 아니고 과거 건축물과의 충돌하는 입면 요소들이 우려됨.